

『코리올레이너스』: 어머니 교육의 아이러니와 갈등극복

송 일 상*

目 次

- I. 서 론
- II. 어머니 교육의 실상과 아이러니
- III. 좌절과 갈등
- IV. 갈등극복과 화해
- V. 결 론

I. 서 론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는 출판 당시부터 일반 관객들로부터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다른 비극작품보다는 커다란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시 영국의 정치체제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상하종속 관계를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고, 일반 대중은 정치적 주체라기보다는 정치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반 대중은 과거의 정치의 대상이 아닌 이념화된 정치적 주체로서 조직화되었고 지배계층과의 대등한 권리와 주장을 펼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대중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금세기에 『코리올레이너스』가 과거와 달리 재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 평가를 보더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치적 비극으로, 아니면 순수한 개인비극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끝으로 더 이상 비극작품은 쓰지 않고 "비희극"(tragicomedy)의 "로만스"(romance)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많은 비극작품을 발표한 이후를 감안하면 이 작품이 정치적 비극이라는 주장과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순수한 탐구라는 주장은 서로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주인공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운명적 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 영어교육과 전임강사

비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 어머니와 가족들, 일반 평민들, 귀족들뿐만 아니라 로마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 볼럼니아(Volumnia)와 코리올레이너스의 관계는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간의 혈연의 의미뿐만 아니라, 로마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 속에서 정치지도자의 위치와 관련해서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이 극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극적 구조가 되고 있으며, 전쟁영웅인 코리올레이너스의 삶과 죽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의 전통을 구현해 주는 인물로서 남성적 기질의 소유자인 어머니로부터 로마적 교육과 가치관을 배웠는데, “로마인의 어머니”(the Roman moth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볼럼니아는 아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용맹, 자부심, 명예 등을 가르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Waith 22). 그러나 볼럼니아의 교육은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띄게 되는데 처음에는 코리올레이너스의 삶의 기본가치가 되고 그의 행동양식으로 작용하여 로마의 전쟁영웅으로 만들지만, 그 이후의 편협된 교육으로 인해 집정관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코리올레이너스의 파멸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리올레이너스 대한 어머니 볼럼니아의 로마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실제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러한 교육에 의해 빚어지는 전쟁영웅의 갈등과 좌절이 어떻게 극복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어머니교육의 실상과 아이러니

코리올레이너스에 대한 볼럼니아의 교육은 처음에는 부드러움과 폭력성이라는 양면성으로 나타난다. 볼럼니아는 일찍이 코리올레이너스가 “아직 몸이 여리고, 아름다운 미소년이 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린 나이”(1. 3. 6-8)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런 전쟁터에 보내서 “명성(honour)”을 얻도록 교육시켰다. “어린 시절부터 명성을 얻기 위해 약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낱 벽에 거는 초상화”(11-12)에 불과하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볼럼니아의 아들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전쟁터에서 “용맹”(valour)을 발휘함으로써 “명성과 명예”를 얻는 일이었다. 그래서 볼럼니아의 교육의 결실과 보람은 코리올레이너스가 “떡갈나무 앞의

관”(15)을 쓰고 개선할 때, “아들을 낳을 때보다 더 기뻐다”(16-17)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용맹을 통해 명예와 명성을 얻는 일이다. 이와 같이 로마적 가치인 “용맹과 명예”에 대해 집착하는 볼럼니아의 태도는 코리올레이너스의 아내이자 그녀의 며느리인 버질리아와의 대화에서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아들의 생명보다는 로마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더 소중한 것으로 교육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정으로 일러두지만,
만일에 아들이 열 두명이 있고, 그들이 다같이 사랑스러워서,
모두가 내 남편이자 아들인 마시어스만큼 소중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중에 한 아들이 주색에 빠져 빈둥거리며 살아가느니,
남아 있는 열 한명의 아들이 나라를 위해 고귀하게 목숨을
바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길 것이다.

Hear me profess
sincerely: had I a dozen sons, each in my love alike,
and none less dear than thine and my good Martius,
I had rather had eleven die nobly for their country,
than one voluptuously surfeit out of action. (1. 3. 21-25)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에 열두명의 아들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열 한명의 아들이 고귀하게 죽는 편이 낫다”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볼럼니아는 아직 도시국가의 형태인 로마사회에서 로마인이 갖추어야 할 국가에 대한 기본 자세는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버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고귀하게 전사하는 것이야말로 슬퍼하기보다는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슬픔을 억제하는 “절제”의 미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며, 바로 이러한 가치가 시어머니인 볼럼니아가 강조하는 교육의 핵심이다. 다시말 하면 앞서 언급된 용맹, 명예,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볼럼니아는 로마인이 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로마사회를 위한 봉사야말로 공화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전쟁승리의 대가는 부와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명성과 명예인 것이다. 브록뱅크(P. Brockbank)는 이러한 볼럼니아의 로마적 가치의 인식은 그녀의 천성적 성격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사회가 스파르타식의 엄격한 규율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Intoduction" 42). 이러한 로마적 가치에 대한 엄격한 교육이 있으므로해서 코리올레이너스는 전쟁이라는 임무수행에 몰두하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의 "칼"로 얻은 "노획물"(bribe, 1. 11. 38)에 대해서도 소유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무시해 버린다. 이러한 행위는 플루타크(Plutarch) 역시 코리올레이너스가 성장한 공화정 초기의 로마사회에서 "용감성" 그 자체가 "미덕"이며, "미덕"이란 "용맹"과 거의 흡사한 것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Bullough 5:506). 이러한 전쟁영웅의 용맹성에 대해 볼럼니아는 군인과 농부를 비유하면서 코리올레이너스의 용맹과 인내를 강조한다.

피투성이의 이마를

쇠장갑 낀 손으로 문지르며, 그는 앞으로 헤쳐 나아간다.
나락을 다 베지 못하면, 노임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있는
수확하는 농부처럼.

His bloody brow

With his mail'd hand then wiping, forth he goes
Like to a harvest man that's task'd to mow
Or all, or lose his hire. (1. 3. 34-37)

여기에 나타난 군인과 농부에 대한 볼럼니아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농부의 활기찬 생산적 활동과 군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볼럼니아는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부드러운 것과 폭력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으로 "용맹"이라는 파괴적인 힘을 창조적인 힘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헥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헤큐바 왕비의 젖가슴도, 희랍군의 칼을 맞고
피를 내뿜는 헥터의 그 의젓한 이마보다는
더 아름답지 못했을 거다.

The breasts of Hecuba

When she did suckle Hector, look'd not lovelier
Than Hector's forehead when it spit forth blood
At Grecian sword contemning. (1. 3. 40-43)

블럼니아의 설명은 “어머니의 젖과 피”, “어머니의 가슴과 아들의 상처”, “젖먹이는 행위와 전투행위”(Adleman, “Anger” 77) 등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부드러운 것과 폭력적인 것이 대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의 젖, 어머니의 가슴, 젖먹이는 행위”는 창조적이고 부드러운 모성애의 특성을, “피, 아들의 상처, 전투행위”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아들의 용맹스러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를 뺨는 헥터(Hector)의 상처 입은 이마가 더 아름답다는 블럼니아의 설명은 자신의 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코리올레이너스의 용맹성을 확인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슛 호랑이에게는 젖이 없는 것처럼 코리올레이너스에게도 “인간의 온정이라는 젖”(milks of human kindness, 5. 4. 29)이 없다는 메네니우스(Menenius)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코리올레이너스는 블럼니아로부터 “용맹”이라는 젖만을 먹고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블럼니아의 교육은 그녀의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the father’s son, 1. 3. 57)인 영 마시우스(Young Martius)가 나비를 갖고 놀다가 입으로 물어뜯어 버리는 잔인한 폭력적 행동도 “아버지의 기질중 하나”(one one’s father’s moods, 1. 3. 66)를 닮은 것이다. 따라서 폭력적 행동에 대한 블럼니아의 긍정적 태도로 인해 용맹과 명예만을 존중함으로써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인 코리올레이너스처럼, 어린 아들의 이런 행위도 좌절과 무자비한 파괴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올라(R. C. Miola) 역시 이러한 영 마시우스의 “희극적 행동”(mock heroic)은 그의 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한 것이며 동일한 행위라고 주장한다(172).

코리올레이너스와 블럼니아의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극의 서두에서 폭동을 일으킨 평민들의 얘기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평민들은 코리올레이너스의 국가를 위한 봉사행위도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아들간의 관계를 이들 모자간의 개인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로부터 주입받은 로마적 가치는 이들 모자간의 가치관의 일체화된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모자간의 일체감은 앞서 블럼니아의 교육을 몸소 실천하면서 전쟁터에서의 용맹을 통해 명성과 명예를 얻는 코리올레이너스의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평민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에서도 모자간의 일체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블럼니아는 전쟁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들이 평민들을 호령하는 장면을 “그 애가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외치는 것 같구나. 예잇, 나를 따르라. 이 겁장이들아. 너희들은 로마의 태생이지만 겁쟁이 뱃속에서 나온 놈들이다”(1. 3. 32-34) 라고 상상하고 있다. 실제로 불사인과의 전투에서 겁에

질린 병사들을 비난할 때 코리올레이너스는 이러한 볼룬니아의 상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너희 놈들은 모두 열풍에 실려 온 온갖 전염병에 걸려 뒤져
버려라, 이 로마의 창피거리들아! 이 짐승떼거리같은 것들____
네놈들의 온몸에 부스럼이 퍼져서 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도
기피할 더러운 물건이 되고, 일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맞바람을 맞아 서로 전염돼 버리거라!
인간의 탈을 쓴 이 거위 새끼들아, 원숭이들도 물리칠
그 종놈들 앞에서 어떻게 패주할 수 있단 말이나!

All the contagion of the south light on you,
You shames of Rome! You herd of--boils and plagues
Plaster you o'er, that you may be abhorr'd
Farther than seen, and one infect another
Against the wind a mile! You souls of geese,
That bear the shapes of men, how have you run
From slaves that apes would beat! (1. 4. 30-36)

코리올레이너스는 열풍에 실려온 “전염병에 걸려 없어져 버려야 할 놈들”, “로마의 수치스런 자”, “짐승 무리와 같은 놈들”, “온 몸에 부스럼이 퍼져 사람들이 기피하고 더러워하는 물건들”, “인간의 탈을 쓴 거위”, “종놈에게도 무서워서 도주하는 겁쟁이”라고 병사들의 행위를 비난, 경멸하고 있다. 이러한 평민들에 대한 경멸적 태도는 전쟁터에서의 용맹스럽고 폭력적인 행동과 더불어 어머니의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코리올레이너스의 가치관과 현실적 행위가 일치된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N. Grene 260-61).

그러나 전쟁시에는 모자간의 일체감을 유지했지만 로마사회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볼룬니아와 코리올레이너스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좌절이 이어진다. 이들의 대립과 갈등은 로마사회가 평온을 되찾고나서 치르게 되는 집정관직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데, 이러한 정치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설득장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볼룬니아의 현실교육은 전쟁시의 용맹과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정치의 권모술수적인 책략과 방책으로 나타난다. 코리올레이너스는 볼룬니아가 겸손의 누더기 옷을 입고 평민들의 비위를 맞추어 집정관직을 얻어내라고 하자, 지금까지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받은 코리올레이너스의 가치관

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존경하는 어머니, 타인의 의사에 따르는 통치자가 되느니 차라리 내 뜻대로 살아가는 봉사자가 되고 싶어요”(… good mother, / I had rather be their servant in my way / Than sway with them in theirs, 2. 1. 200-02)라고 어머니의 권고를 일단 거부한다. 항상 자신의 후견자이고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믿었던 어머니에 대해 지금 현상황에서는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코리올레이너스의 평민들에 대한 경멸과 모욕적인 태도는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것이며 지배계층인 귀족적 자부심 또한 어머니에게서 “주입”(absorbed)받은 것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두둔해 주질 않으시니.

평소엔 놈들을 가리켜 담요 부스러기를 걸친 종놈들이니,
동전으로 매매할 물건이니, 집회가 있을 땐 텅 빈 대갈통으로
나타나 나 같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평화냐를 논하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 꿀먹은 병어리 노릇이나 하기 위해 생겨난
물건들이라고 비난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선

왜 소자에게 온순하라고 하십니까? 제 본성에 반하는
거짓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차라리 사내 대장부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I muse my mother

Does not approve me further, who was wont
To call them woollen vassals, things created
To buy and sell with groats, to show bare heads
In congregations, to yawn, be still, and wonder,
When one but of my ordinance stood up
to speak of peace or war,

Why did you wish me milder? Would you have me
False to my nature? Rather say I play
The man I am, (3, 2, 7-16)

위의 대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는 “담요 부스러기를 걸친 종놈들”, “동전으로 매매하는 물건과 같은 자들”, “텅 빈 대갈통”, “어리둥절 꿀먹은 병어리”, “물건들”이라는 이러한 코리올레이너스의 경멸적 언행들 역시 불럼니아에게서 교

육받은 영향이 크다. 그러나 집정관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자신의 경멸의 대상인 평민들에게 갑자기 겸손하라고 설득하는 볼럼니아의 요구는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그의 가치관의 핵심은 “사내 대장부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변상황의 요구와 무관하게 항시 자신의 내면적인 자유의지에 충직할 것을 고집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관계와 무관하게 자아에만 충실”(truth-to-self regardless of human context, Eagleton 106)해 왔다. 로마사회가 그에게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와 반하는 것이라면 일체 거부해 왔다.

그러나 볼럼니아는 코리올레이너스의 이러한 가치관과는 달리, 현실상황의 필요에 따라 항시 가식과 위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는 기회주의적 정치가의 모습으로 변모한 상태다. 즉, 코리올레이너스가 명예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명예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변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볼럼니아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실상황의 민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볼럼니아와 코리올레이너스의 대립과 갈등은 어머니의 자아중심적 가치관과 아들의 국가중심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볼럼니아는 평민에게 나서기를 거부하는 코리올레이너스에게 설득하는 3막 2장의 장면에서 현실정치가로 변모한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논리는 전쟁시 최선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적을 책략적으로 속이는 것이 불명예가 아니듯, 평화시에도 이러한 책략이 명예와 손잡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손잡았기로서니 전혀 불명예스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시건 평화시건 “책략”은 필요하면 사용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때늦은 교육이긴 하나 볼럼니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현실 정치적 교육은 아들에게 “타협과 위선”(comprise and hypocrisy, Waith 24)이라는 정치적 책략을 주입하는 것이다.

너는 너무 고집불통이야.
 하긴 이런 절박한 때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훌륭한 태도라 할 수 있겠지. 네 자신이 직접
 말한 적이 있지. 전시에는 명예와 책략이 막역한
 친구사이처럼 일심동체가 되어 자라나는 법이라고.
 그렇다면, 평화시라고 하여 이 두 가지가 화합하기로서니
 서로 손해 볼게 뭐가 있는지 말해 보렴.

You are too absolute.
 Though therein you can never be too noble,
 But when extremities speak, I have heard you say,
 Honour and policy, like unserver'd friends,
 I' th' war do grow together: grant that, and tell me,
 In peace what each of them by th' other lose
 That they combine not there. (3. 2. 39-45)

사실 코리올레이너스의 “고집불통”은 절박한 상황만 아니면 “훌륭한 태도”이다. 전시에서 “명예와 책략”은 막역한 친구와 같이 일심동체인 것이며 평시에도 서로 화합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 볼럼니아의 현실적인 주장이다. 그러므로 볼럼니아의 설득과 호소는 단순히 위선과 가식만을 심어주기 위한 책략이 아니라, 가족, 동료, 국가를 위한 일종의 애국적 행동을 위한 가식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instruction)에도 없고, “마음”(heart)으로도 원치 않고, “진심”(bosom's truth)에도 용납될 수 없는 “거짓말”(bastards and syllables)을 해야하는 처지는 적의성을 함락시키는데 “행운과 위험”(fortune and hazard)에 몸을 맡겨 피흘리는 대신에 “감언이설”(gentle words)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명예스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과 동지”(fortunes and friends)가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불명예스럽지 않는 한 “마음에 없는 말로”(dissemble with my nature) 거절해서는 안된다. 이는 “아내와 아들과 원로들과 귀족들”(your wife, your son, these senators, the nobles)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은 “비위”(a fawn)를 맞추어주면 평민들의 “호의”(loves)를 사고 파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3. 2. 52-69).

따라서 볼럼니아의 설득방법은 이전의 교육방법과 달리 확실히 현실적이고 책략적이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집요하다. 그녀는 무대 위의 배우를 다루는 연출가처럼 구체적으로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 까지도 가르친다. “이 모자를 들고, 이 정도 높이로 손을 쳐들고”, “무릎을 마당돌에 닿을 만큼 굽혀보아라”, “몸짓이 웅변을 대신하는 법, 무식꾼들은 눈이 귀보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머리를 몇 번이고 조아려라”, “이후로 여러분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태도를 고치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그녀는 연출한다(3. 2. 72-86). 이러한 볼럼니아의 태도는 능숙한 현실정치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저스처의 중요성까지 강조하면서 현실정치의 책략인 협상과 타협에 능수능란한 그녀의 능력은 “무르익은 오디”(ripest mulberry, 3. 2. 79)에 비유되고 있다. “무르익은 오디”에 대한 비유는 겸손함을 강요하는 볼

럼니아의 가식적인 태도를 암시한다. “손에 쥐기 힘들만큼 무르익은 오디”의 겸손함은 코리올레이너스에게는 당치 않은 기존가치관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가 수용치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럼니아의 강요는 과거의 교육과 달리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권모술수적인 현실정치가의 설득과 책략적 방법이다. 만일에 코리올레이너스가 불럼니아의 설득을 수용하여 평민들에게 “빌기만 하면”(pardons) 당장에 “괜찮습니다”(being ask'd)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3. 2. 86-89). 그 이유는 평민들이 순진하고 변덕스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평민에 대한 코리올레이너스의 경멸적인 언행과 태도를 보았듯이 코리올레이너스와 평민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평민들의 “굶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1. 1. 4)와 코리올레이너스의 “품삿을 애원하기 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다”(2. 3. 112-13)라는 대사에서 확연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듯이, 코리올레이너스는 평민에 대한 강한 경멸과 혐오감을 갖고 있어, 집정관직에 수반되는 조건을 그가 수용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전쟁의 상처”를 군중들에게 내보이는 행위 또한 전쟁영웅의 나약함을 노출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굳은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히는 행동이다. 따라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순수히 명예를 위해서 싸운 징표를 보인다는 것은, 그가 가장 혐오하는 대상인 평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처를 보여주어 당신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하고 싶지 않다”(2. 3. 107)라고 말했듯이, 전쟁의 상처를 내보이는 행위는 로마적가치인 용맹과 명예를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그는 단호히 거절한다. 결과적으로 불럼니아의 집정관직에 대한 설득은 실패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코리올레이너스는 집정관직을 획득하는 전통적 의식절차가 자신의 요구와 가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의식을 거부하게 된다. 앞서 코리올라이(Corioli) 전투에 참여했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했기 때문이지만 여기에서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자신의 가치관과 상반되기 때문이다(Knight 161). 반면에 불럼니아는 현실정치에서는 기존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도 타협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할 수행”(perform a part. 3. 2. 1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고집불통”인 아들을 설득해 보았으나 코리올레이너스가 집정관직에 대한 회유를 거부하자 불럼니아는 이러한 절박한 정치적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최종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아들의 복종을 받아내기 위해 “용맹”이라는 로마적 가치를 언급하며 마지막 경고를 한다.

너의 용맹성은 나의 것. 나에게서 빨아 마신 것.
그러나 너의 거만함은 오로지 너의 것이다.

Thy valiantness was mine, thou suck'st it from me.
But owe thy pride thyself. (3. 2. 129-30)

볼럼니아는 코리올레이너스에게 “용맹”이라는 로마가치를 주입했지만 “자만”(pride)이라는 본성이 그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평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코리올레이너스의 “거만”과 볼럼니아가 말하는 “자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의 무능력”(his inability to be other than he is, Bayley 149)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만은 자기 과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회의 관례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 중심적 행동이며, 또한 일종의 사회적 검증이라 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치평가를 거부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소모적 특성이다(Eagleton 104-05). 볼럼니아의 설득력도 어쩔 수 없는 통제불능의 코리올레이너스의 완고한 성격에 대해서 딜론(J. Dillon)은 “코리올레이너스는 모든 절대적인 것에 대해 스스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모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하려 애쓰고 있다(Coriolanus is trying to set himself up as the absolute to which all about him is relative, instead of accepting himself as relative and subject to collective absolute. 149)”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볼럼니아는 자신의 끈질긴 교육을 통해서 자기아들을 전쟁시에는 한치의 과오나 실수가 없는 전쟁영웅으로 만들었지만, 평화시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 특히, 정치세계에서 전쟁영웅 코리올레이너스는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 로마사회와 로마적가치에 대한 그의 편협된 선입견 때문에 그의 창조적인 능력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파괴되어 간다. 로마의 전쟁영웅은 이제 평민의 적이자 로마의 적이 되어 추방된다. 그 이후 자신을 좌절과 과멸로 몰고 간 로마조국에 대한 공격행위가 뒤따르고, 이에 대한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의 설득과 호소가 이어지며, 또한 이로 인한 전쟁영웅의 좌절과 갈등 그리고 화합과 극복의 과정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 전개과정은 다음 장에서 코리올레이너스의 비극적 액션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액션은 전쟁영웅을 만든 이상적 교육과 로마공화정이라는 현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교육은 상호양립할 수 없었다는 강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현실적 교육이 부족한 대상은 평민이 아닌 볼럼니아와 지배계층인 귀족들이라 할 수 있다. 볼럼니아와 귀족의 정치적 조정능력도 위선과 술책이라는 권모술수적 방법에 국한

되어 있다. 그들은 평민의 요구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임기응변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편의를 추구함으로써 전쟁영웅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와 같이 불렀니아의 초장에 보여준 이상적 교육, 즉 용맹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자신의 아들 코리올레이너스를 교육시킨 로마적 가치는 전쟁시에는 영웅을 창조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아들이 정치일선에 뛰어들게 될 때, 용기와 명예보다는 타협과 아첨을 아들에게 강요하는 기회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본심을 드러냄으로써 자만심과 자존으로 일관해온 아들의 정신에 커다란 갈등과 좌절을 초래하게 만든다.

결국 그녀의 교육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필요조건에 따라 지고의 가치관을 버리고 현실에 집착함으로써 아들을 전쟁영웅의 위치에서 초라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로마적 가치가 무엇이고 귀족들의 참다운 신조와 이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며, 오직 코리올레이너스만이 자신의 엘리트 의식과 자만심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됨을 보고 “비에감”(pathos)을 느끼게 된다.

Ⅲ. 좌절과 갈등

로마정치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인 집정관이라는 직책을 둘러싼 불렀니아의 설득은 코리올레이너스의 분노에 무기력하고 만다. 이는 위선과 가식을 혐오했던 그의 강직한 기질이 원칙과 기존의 로마적 가치를 무시하는 불렀니아의 설득에 대한 최초의 거부반응을 보인 행동이다. 그러나 이 극의 액션은 코리올레이너스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선과 가식을 거부하는 순간 그의 정적들에게는 음모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아이러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는 평민들에게 느꼈던 인간적 환멸과 로마의 현실정치세계에 대한 혐오와 수모가 그의 강인한 정신내부에 작용한 것이다. 이것은 위선과 책략을 선동한 어머니와 귀족들 그리고 호민관들의 음모가 함께 혼합되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로마의 타락된 현실세계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세상”(a world elsewhere, 3. 3. 135)을 찾아 나서겠다는 코리올레이너스의 극단적인 액션은 그가 비극적 영웅의 기질을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겠다. 로마로부터 추방의 판결을 받은 후의 코리올레이너스의 태도는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며, 추방에서 복수로 이어지는 그의 행동은 불의와 위선에 대항하는 기상을 그의 강력

한 투쟁의식속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리올레이너스의 이러한 불굴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방당한 후 자신의 조국을 상대로 복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서 습득한 교육과 비교해서 또다른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코리올레이너스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의 희생자라 한다면 평민들은 그들의 대변자인 호민관들의 책략의 희생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브루투스(Brutus)와 시시니우스(Sicinius)는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계획하고 평민의 대변자라기 보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사실을 조작한다. 또한 코리올레이너스가 그들의 정치권력유지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므로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전쟁영웅의 정치적 패배와 치욕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코리올레이너스의 재판절차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전적으로 모순되는 책략적 방법으로 평민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정치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코리올레이너스의 패배는 “나라는 사내 대장부”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이며 인간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오직 자아에만 충실한 삶의 자세를 일관한 결과이다. 그는 평민들을 “천한 개새끼들”(common cry of curs)로, “썩은 연못의 악취”(reek o' th' rotten fens) 풍기는 자라고 경멸하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추방한다”(I banish you!)라고 비난하면서 미련 없이 로마를 떠난다(3. 3. 120-23).

코리올레이너스는 이제 더이상 로마시민이 아니다. 그는 거대한 혹성 (planet)이고 로마는 위성(satellite)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적 가치의 외로운 상징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로마사회에 등을 돌리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지”(There is a world elsewhere! 3. 3. 135)라고 하며 자신의 장래를 낙관한다. 추방의 비참함은 그 자신의 정신내면에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코리올레이너스는 거지차림으로 적국의 도시로 기어 들어가 자신의 봉사과 의무를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 그는 전쟁시나 전쟁의 위협이 존재할 때는 실수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만한 마음 한 구석에는 이제는 인내해야 할 어떤 외로움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력하면서도 비장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무서워하는 “외딴 데 홀로 있는 용”(a lonely dragon. 4. 1. 30)을 퇴치하러 가는 헤라클레스가 된 것이다.

로마 귀족의 가치와 자만심의 화신인 코리올레이너스가 그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이방인의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투시에 그의 고집스러운 행동은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었고 모든 이성을 초월한 용맹 그 자체를 의

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평화시에 이러한 그의 고집은 자신의 로마사회계층과 갈등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사회가 필요로 하는 타협과 위선적 형식절차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리올레이너스는 “사적자아와 공적자아의 일체성”(Onenes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lf, Dillon 150)을 상실하고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메네니우스가 보여주는 알팍한 구실이나 핑계의 속성을 지녔더라면 그는 전쟁터에서 초인적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코리올레이너스처럼 최고의 군인은 고귀한 정신을 소유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상징하는 최상의 화신임을 확신하는 굳은 절개와 철저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인물에게 “곤궁은 담력의 시금석”(extremities was the trier of spirits)이 되고, 운명의 타격에 치명상을 입을 때는 “고매한 인내심”(a noble cunning)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철같이 굳세게 만들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의 방백 (4. 1. 1-11)에서 암시되고 있지만, 코리올레이너스가 현실적 타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의 고집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굴복이란 진심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마음에 씻지 못할 “영원한 비굴함”(inherent baseness, 3. 2. 123)을 새기는 것으로 그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현재의 사회적 적응능력의 결핍은 그의 과거의 영웅적 행동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신의 사회성 결여가 사회의 안전과 그 사회의 평민들의 이익 보존에 해가 된다면 영웅은 희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사회로부터 받은 추방의 고통만큼 그 사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복수심을 불태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용감한 전쟁영웅에서 비인간적인 파괴의 화신”(from brave warrior to inhuman avatar of destruction, Miola 199)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로마에 대한 복수는 코리올레이너스가 경험한 로마의 비윤리적 정치현실과 탐욕과 변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로마세계에 대한 반발이다. 과거의 적장인 오피디우스(Aufidius)의 집앞에서의 독백장면에서 자신이 복수할 로마사회에 대한 고백은 현실세계와 인간의 속성에 대한 코리올레이너스의 깊은 좌절감과 통찰을 엿 볼 수 있다. 그의 독백 내용을 보면, “한마음”(one-heart)이 된 “떨레야 떨 수 없는 사랑”(love unseparable)으로 일체가 된 친구도, 일단 “사소한 일에 불화”(a dissension of a doit)가 생기면 “불구대천지 원수”(bitterest enmity)가 된다. 반대로,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외나무다리 원수”(foes)도 우연한 “기회”(chance)에 달걀하나 값도 안되는 “선심”(some trick)을 씌으로써 “막역한 친구”(dear friends)가 되고 서로 “사돈”(interjoin their issues)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의식함

으로써, 사실상 코리올레이너스는 “변화무쌍한 세상”(world’s slippery turns)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4. 4. 17-22).

이러한 코리올레이너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감안해 본다면 전쟁영웅의 자만심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리올레이너스의 자만심이 현실적 비극의 요인이 아니라 전쟁영웅의 위대성을 구현시키는 요소로 해석한다면, 코리올레이너스의 “로마외의 다른 세계”에 대한 언급은 어딘가에 “공정한 정의”(fair justice, 4. 5. 25)가 존재할 것이라는 그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가 갈망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행동은 부당한 현실을 응징하고 또다시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영웅적 기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상이 외면 당하고 파괴되어 가는 몰락과정을 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리올레이너스의 분노는 그의 판단력이 마비되거나 이성적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가 아니다. 코리올레이너스 주변의 책략가들을 통해 제시된 로마의 현실세계를 감안해 볼 때, 자신을 반역자로 단정하고 추방한데 대한 코리올레이너스의 분노는 정의실현을 추구하는 자신의 진실을 왜곡하는 처사에 대한 일종의 항거의 표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리올레이너스의 자만은 영웅적 기질의 일면으로 긍정적 평가를 해야 하고, 그의 분노 또한 비정한 인간사에 대한 정당한 의분으로 승화된 것으로 평가해야 하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특성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리올레이너스는 오직 “사내대장부의 역할”이란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분노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코리올레이너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태도는 한결같이 경멸과 분노가 뒤얽힌 형태로 나타나, 초지일관 굳건하게 명예를 지켜온 그의 성격 속에서 “융통성 없는 외골수의 성품”(nature/Not to be other than one thing, 4. 7. 41-42)으로 굳어져 버렸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일관된 경멸적 분노의 언어는 그의 군인적 기질을 고려하여 그의 가치관과 논리에 따른 생각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리올레이너스의 본성과 가치관의 일치는 그 자신의 순수성과 영웅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물들의 정략적 책략 때문에 그의 파멸의 길로 이어진다는 아이러니가 담겨있다.

코리올레이너스의 결정적 파멸의 원인이 되는 가족과의 만남은 “어린 울보”(a boy of tear)의 모습에서 강인한 남자로 변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복수를 위해 로마로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코리올레이너스는 복수의 화신이자 파괴자의 이미지였다. 메넨우스와의 만남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조국에 대한 비정

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가족과의 상봉에서 그의 내면세계는 지속적 공격에 의해서 서서히 허물어지는 요새처럼 친구와 가족의 호소에 굴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 특히 그의 아들 영 마시우스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거역할 수 없는 천륜의 정마저 느끼게 된다. 로마를 “파헤치고”(plough) 이태리를 “쓸어버리라”(harrow)고 항변하지만, 그는 어린 아들의 얼굴을 통해서 “대자연”(great nature)이 명하는 “거절하지 말라”(Deny not)는 소리를 듣는다. 더욱이 그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본능에 굴복하는 “바보 얼간이”(a gosling)가 아니며, 일체의 혈육관계도 없는 “혼자 생겨난 사람”(no other kin)이라고 느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5. 3. 31-37). 이처럼 천륜의 정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칠수록 그는 더욱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인가를 자각하고, 또한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천륜을 어기고 배은망덕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따라서 코리올레이너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만심”은 “하찮고 세속적인 것”(a little, earthly thing)이 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거대한 우주적 힘”(a great cosmic power)으로 역전돼 버렸다(Knight 68).

IV. 갈등극복과 화해

코리올레이너스의 갈등극복 과정에서도 어머니 교육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로마적 가치의 화신인 케이우스 마시우스 코리올레이너스(Caius Martius Coriolanus)가 가족의 호소에 굴복하여 자신의 비극적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의 해답이야말로 코리올레이너스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추구해 온 진정한 의미의 로마사회와 로마적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단순히 가족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좀더 넓은 의미에서 로마에 대한 조국애인가? 코리올레이너스는 직접 찾아온 가족방문단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천륜의 정과 그것을 거부하려는 부자연스런 노력간의 방향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인정아 물러가라! 부부간의 애정도, 혈육간의 특권도 모두 파기해 버리자. 강직함만이 미덕이다!”(out, affection!/ All bond and privilege of nature break!/ Let it be virtuous to be obstinate. 5. 3. 24-26)라고 항변하면서 “이런 것에 녹아 버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직한 인간일 수 있겠는가”(I melt, and am not/Of stronger earth than others. 28-29)라고 다짐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의 감정이 그를 좌우하고 있다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면적 갈등으로 인한 인간적 상호관계에 대한 코리올레이너스의 인식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점에서 그의 액션은 비극적이라 할 수 있지만(Barton, "Livy" 128), 코리올레이너스가 결국에 가서 자신의 입장의 허구성을 깨달았다는 레가트(A. Leggatt)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208). 왜냐하면 불럼니아가 설득하는 동안에 그의 복수의 열정은 완화되어 갔고,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 불럼니아와 정신적 어머니격인 로마에 대한 파괴행위에 대해 잠시 그는 생각하게 된다. 로마는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전쟁영웅을 잃어버린 상태로 전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코리올레이너스의 입장에서 "조국의 장부"(country's bowels, 5. 3. 103)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런 일이며 영웅적 무사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위가 불경스러운 행동임을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호소와 자신의 천성에 굴복하고 만다. 이러한 로마의 전쟁영웅의 우아한 행동은 복수의 절규가 아닌 관용의 형태인 수용과 포용을 의미하는 침묵의 행위로 나타난다.

결국 불럼니아의 설득으로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에 대한 복수전을 포기한 것이다. 이 순간부터 코리올레이너스의 인간적 고뇌와 내면적 갈등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심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이 없다) 아, 어머니, 어머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들이 굽어보며 이 부자연스런 정경을
조소하고 있질 않습니까.

(Holds her by the hand, silent.) O mother, mother!
What have you done? Behold, the heavens do ope.
The gods look down, and this unnatural scene
They laugh at. (5. 3. 182-5)

이와 같은 엄숙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침묵" 행위는 지금까지 그려졌던 전쟁영웅의 인간적 변모를 부각시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장면이고, 침묵의 순간 코리올레이너스의 운명은 역전되고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가족과의 대면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코리올레이너스의 반응은 그 자신도 인간적 애정과 호소를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녀의 손을 잡는" 행위는 캐시우스(Cassius)와의 언쟁장면에서 포오샤(Portia)의

죽음을 조용하게 맞이하는 브루투스(Brutus)와, 클레오파트라(Cleopatra)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자 상념에 잠기는 안토니(Antony)처럼 번민에 싸인 코리올레이너스의 최후의 행동으로서 관객의 동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Miola 201). 또한 전쟁영웅으로서 전쟁터에서 보여주었던 코리올레이너스의 용기는 국가와 동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보여준 미숙아가 아닌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사랑의 표시로서, 사랑이 무력의 상징인 칼을 압도한 것(Knight 196)이라 하겠다. 샤니(M. Charney)는 연극적 이미지러리를 통해 현실과 실재가 상반된 로마의 현실정치세계의 본질과 내면의 진실된 자아에 충실한 코리올레이너스의 영웅적 태도를 대비시키면서, “그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천성의 진실을 배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조롱하느니 차라리 로마로부터 추방의 고통을 감내하고자 했다”(he cannot betray the truth of his own nature at any price, and he would rather suffer banishment from Rome than flatter the people. 170-71)라고 대변한다.

따라서 코리올레이너스가 로마에 대한 복수를 포기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인간적 진실을 수용했기 때문이며, 전쟁영웅의 강직한 기질에서 나오는 일관된 태도라 할 수 있다. 코리올레이너스는 최후의 순간에 로마조국에 “행복한 승리”(a happy victory, 5. 3. 186)를 가져다주었고 자신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유리한 평화조약”(convenient peace, 191)을 주선하겠다는 코리올레이너스의 결의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불운한 미래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극적 영웅의 의로운 기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로마세계라는 무대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천성을 거역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Charney 176). 그러므로 코리올레이너스는 자신의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로마의 평민들이나 적국의 평민들, 귀족 그리고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사람들의 인간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세계의 현실을 침묵으로 주시하는 초월적 자세를 취한 것이다. 즉, 전지전능한 신의 안목으로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그의 인식은 지금까지의 편협성을 탈피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자연스런 광경”(unnatural scene, 5. 3. 184)으로 파악하는 타당성을 지닌 것이다. 초월적 존재로서 자신의 상황을 “부자연스런”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복수라는 자신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의 의미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자만을 이 순간에 슬기롭게 극복한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결단은 개인적 가치관에 집착했던 그의 비타협성을 극복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현실적 상황을 스스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볼럼니아의 설득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분과 결단에 의해 행동한 것이다. 이러한 코리올레이너스의 결단은 아내 버질리아와 무대언어로 사용된 “침묵”의 언어를 통해 감지될 수 있다. 코리올레이너스의 결단은 “내 소중한 새침데기”(my gracious silence. 2. 1. 174)라는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버질리아와의 키스는 그가 이미 대자연의 섭리에 따른 인간적인 호소와 사랑을 수용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 외형적 행위는 코리올레이너스가 불럼니아에게 굴복한 것이다. 그러나 불럼니아의 장황한 설명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코리올레이너스의 인간적 애정과 사랑을 통한 자아성찰이며, 앞서 지적한 내면적 행동을 상징하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코리올레이너스를 패배로 몰고 간 불럼니아의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성적 역할이 병행된 것으로 아버지, 즉 초자아라는 남성적인 아버지의 역할로써 코리올레이너스를 사내대장부로 키웠지만, 또한 그녀는 사랑의 근원이자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역할과 그 힘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he is both father and mother to her son. With her assumption of the masculine role of father/super-ego, she has bred him to be all man: and yet she retains her maternal part as the source and object of love and retains her power to withdraw it, Grene 266)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와 아들간의 사랑은 일종의 정신적 근친상간의 이미지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리올레이너스의 불럼니아와 버질리아와의 침묵의 교류는 복수전의 포기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반역과 변절이라는 수치와 불명예가 교차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인간적 진실을 회복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순간에 코리올레이너스는 정신적으로 승화되고 초월된 비극적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불굴의 의지와 굳은 지조, 명예와 자만심으로 일관했던 전쟁영웅의 모습과 침묵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하고 평범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초연한 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코리올레이너스는 그의 삶 속에서 불굴의 투쟁정신을 자유모험가의 이미지로 보여주었지만 전쟁영웅으로서의 지나친 자만심과 편협된 현실인식으로 인해 패배자가 되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코리올레이너스는 자신의 가치관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초지일관된 삶을 산 비극적 영웅이지만, 팔머(J. Palmer)의 다음 서술에서 보듯이, 그는 “성숙되지 못한 화려한 바보”(the splendid oaf who has never been come to maturity)이자 “책임 있는 성인이라기 보다 미숙한 청년의 특성”(more characteristic of an adolescent than a grown man, 297)을 지닌 인간으로 살다가 비극적 주인공이 되

는 인물이라는 지적도 현대적 의미에서 음미해 볼 만하다.

사실 이 극의 결말에서 코리올레이너스의 비극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질서의 회복세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리어왕』(*King Lear*)에서 올바니(Albany), 『햄릿』(*Hamlet*)에서 포틴브라스(Fortinbras), 『맥베스』(*Macbeth*)에서 맬컴(Malcom)과 같은 구체적인 질서 회복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없다는 사실이 이 극을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과 구별짓는 점이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로마극인 『줄리어스 시이저』(*Julius Caesar*)와 『엔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와도 다소 다른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비극적 주인공의 파멸 이후의 극의 결말에서 구체적인 로마사회의 질서회복을 위한 세력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줄리어스 시이저』에서는 엔토니와 옥타비우스가 주도하는 삼두정치를 예견할 수 있고, 『엔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는 옥타비우스에 의한 로마제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코리올레이너스』에서는 전쟁영웅이 사라지고 난 이후로 도시국가 형태인 로마사회에는 그 어떤 영웅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랑스런 아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로마의 전쟁영웅으로서 코리올레이너스는 그 지위와 위치가 완전히 비극적으로 역전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불안정한 로마초기의 공화정에서 거칠고 융통성 없이 자만과 지조만을 내세우며 살아온 고지식한 기질 때문에 그는 로마적 가치를 왜곡할 수가 없었고 더우기 로마사회를 기만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영웅 코리올레이너스야말로 어머니에게서 교육받은 로마의 미덕을 일관되게 끝까지 고수한 로마적 가치의 화신이며, 그의 비극성은 로마세계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순간에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V. 결 론

『코리올레이너스』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극은 이런 시절부터 어머니 볼럼니아의 교육을 습득하고 충실하게 그 교육을 수행한 코리올레이너스의 액션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로마적 가치추구는 두 가지 상황에서 현실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관객에게 가치관 내지 도덕성의 모호성과 아이러니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이 극의 초장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자신의 자만심과 세속적 요구조건에 경멸을 나타냄으로써 조국에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다. 이것은 관

객에게 가치관과 도덕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고의 정신과 긍지로 일관해 온 위대한 영웅이 조국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아이러니와 페이스스를 느끼게 된다. 이 극의 후반에 이르면 코리올레이너스는 어머니의 설득과 가족들의 호소 때문에 천륜의 정이 끊어올라 로마공격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액션에 수정을 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불굴의 용기와 자존심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전쟁영웅이 천륜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허물어지고 다시 한번 로마와 가정을 위해 초연하게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맡기는 모습에서 코리올레이너스의 고고한 인품에 대해 감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과멸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모순과 아이러니야 말로 셰익스피어가 인류역사와 인간존재 양식에 대해 통찰한 휴머니즘의 철학일지도 모른다.

Works Cited

- Adleman, Janet. "Anger's My Meat": Feeding, Dependency, and Aggression in *Coriolanus*,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Coriolanus*. Ed. Herlo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 1988, 75-89.
- Bullough, Geoffery.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Vol.V*. London: Routledge, 1966.
- Barton, Anne. "Livy, Machiavelli, and Shakespeare's *Coriolanus*". *Shakespeare Survey*, 38(1985)
- Charney, Maurice. *Shakespeare's Roman Plays: the Functioning of Imagery in the Drama*. Cambridge, Mass: Harvard U.P, 1961.
- Dillon, Janette. *Shakespeare and the Solitary Man*. London: Macmillan, 1981.
- Eagleton, Terence. *Shakespeare and Society: Critical Studies in Shakespearean Drama*. London: Chatto & Windus, 1967.
- Greene, Nicholas. *Shakespeare's Tragic Imagination*. London: Macmillan, 1992.
- Knight, G. Wilson. *The Imperial Theme: Further Interpretations of Shakespeare's Tragedies Including the Roman Plays*. London: Methuen, 1979.
- _____. *The Sovereign Flower*. London: Methuen, 1958.
- Miola, Robert S. *Shakespeare's Rome*. London: Cambridge U.P, 1983.

Palmer, John. *Political Characters of Shakespeare*. London: Macmillan, 1948.

Shakespeare, William. *Coriolanus: The Arden Shakespeare*. Ed. Philip Brockbank. London: Methuen, 1976.

Waith, Eugene M. "The Herculean Hero",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Coriolanus*. Ed. Herlod Bloom, 9-31.

Abstract

Coriolanus: Irony of Volumnia's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of Coriolanus' Tragic Conflict

Il-sang Song

The importance of political ideas in the Roman Plays extends into the dramatic action, for each of these plays represents a tragic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The protagonists — Brutus, Antony, Coriolanus — are all one of real integrity and worth, but their failure in political action brings on their tragedy. The essence of the tragedy lies in the sufferings and pull of public and private motives, choices, and abilities.

Coriolanus, since his childhood, has acquired the Roman values — valour, constancy, service and sacrifice to Rome — from his mother Volumnia's education. In wartimes he has served and devoted himself, his body and soul, to his country, and has greatly accepted "reputation and honour". But in times of peace he would not follow his mother's instruction. He knows well that for the position of "consulship", the truth of his nature — pride and constancy — cannot endure a Machiavellian way of deception and compromise required in the Roman political world. Also, he cannot pretend to sympathize with the people, plebeians. As a result, he is confronted with a hazardous situation where he jeopardizes the political equilibrium of Rome, and is banished out of Rome.

Coriolanus is so thoroughly political that it may be difficult to find any concern for the private man in the play, but it lies in Coriolanus' constancy on his integrity: he cannot dissemble the truth of his nature even if it involves the loss of the consulship and exiles from Rome. After banishment, he perceives his banishment as a kind of betrayal action of the Roman society, and decides to revenge himself on "ingrateful Rome". However, the deeply cultivated values of love to family and sacrifice and service to Rome, which had been educated by his mother, could triumph over his passionate

desire for revenge. That is a sort of the humanistic philosophy which Shakespeare recognizes on the human history and existence through his works.